

‘뉴욕의 거장들’ 광주 상륙 앞두고 기대감 폭발

ACC 10주년 특별전, 내달 18일 개막
잭슨 폴록 등 현대미술 거장 21명
국내 최초 추상표현주의 집중조명
30일까지 열리버드 기간 50% 할인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대거 공개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이 다음달 광주 상륙을 앞두고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ACC에 따르면 이 전시는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0월9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6관에서 개최된다.

뉴욕 유대인박물관이 소장한 2000억원 규모의 컬렉션을 공개하는 자리로 단순한 해외 명작 전시를 넘어,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관객들에게 깊이 있게 소개하는 드문 기회다.

이번 전시가 눈길을 끄는 건 국내 최초로 열리는 추상표현주의 집중조명 전시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당시 뉴욕에 정착한 작가들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작품 창작기법을 새롭게 도입해 내면의 감정을 응축한 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역동적인 활동으로 뉴욕은 단숨에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했고, 이후 미국은 문화적 황금기를 이끌어갈 동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어진 추상표현주의는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양미술사의 유구한 흐름 속에 미국미술을 최초로 각인시킨 역사적인 미술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보기 드문 전시가 ACC에서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슈퍼얼리버드 예매가 시작되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민 김모(28)씨는 “광주에서 이런 전시가 열리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폴록과 로스코의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 설렌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미술계 인사 A씨는 “일반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의 미술 애호가들이 이 전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슈퍼얼리버드 예매는 이날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해 먼저 시작된 후 네이버, 티켓



마크 로스코 작 '십자가'.

ACC 제공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크, 인터파크에서 17일부터 열린다. 티켓 가격은 성인 1만3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1만원, 48개월 미만 무료이며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슈퍼얼리버드 기간 예매하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뉴욕의 거장들’은 20세기 현대미술의 창조적 혁신을 이끈 추상표현주의 작가 21인의 핵심 작품들로 구성된다. 미술사적 의의와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갖춘 뉴욕 유대인박물관 컬렉션을 바탕으로 엄선된 원화 작품과 다양한 미디어 자료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작으로는 미국 미술의 서정적 상징이자 추상표현주의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잭슨 폴록의 ‘수평적 구조’, 인간성과 비극의 내면을 탐구한 마크 로스코의 ‘십자가’, 페미니즘과 장식의 미학을 담아낸 뉴욕 미술계의 여성 차별을 예술로 승화한 미리엄 샤피로의 ‘팡파르’ 등이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방송인 전현무가 참여한 오디오 가이드로 참여해 작품 감상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관람객과의 친근한 소통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ACC서 펼쳐지는 뉴미디어 ‘배움의 장’

내달 11~13일 ‘오픈런 ACC’
20여종 뉴미디어 기술 교육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다음달 11~13일 문화창조원 창작자 스튜디오에서 예술가와 창작자를 위한 배움의 장인 ‘오픈런(Open Learn) ACC’를 개최한다.

10일 ACC에 따르면 ‘오픈런 ACC’는 ACC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교육 행사로, 뉴미디어 기술을 매개로 예술 창작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창작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기간 인공지능(AI), 영상·이미지, 제작·설치 등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20여종의 강연, 워크숍,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예술가들이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참여자들은 동시대 기술과 예술의 접점을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자신만의 작업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행사는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이 협력해 완성도를 높인다.

강연은 최승준 미디어 아티스트가 ‘생성형 호기심’을 주제로 서막을 열고, 이어 자이언트스텝 최승호 실장, 서효정 미디어 아티스트, 디지털 아티스트이자 김치 앤잡스 공동 창립자인 엘리엇 우즈, 김윤철 스튜디오의 박정연 디렉터가 각각 창작 과정과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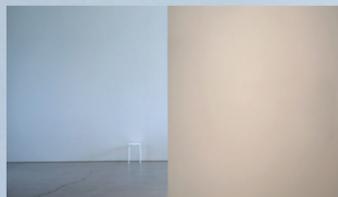
워크숍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 실시간 3D 콘텐츠 제작 도구인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 모션 캡처, 전자 회로 기판 ‘PCB(Printed Circuit Board)’ 제작 등 다양한 기술을 실습할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에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실험적 라이브 공연이 열려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생생한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워크숍과 토크 프로그램은 지원서 심사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한다.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박찬 기자

카메라에 담긴 잃어버린 감각과의 조우

드영미술관 리일천 기획초대전
9월9일까지 사진 작품 33점 전시



리일천 작 'Absence(부재)'.

드영미술관 제공

드영미술관은 올해 두 번째 기획초대전으로 리일천의 ‘Phenomenon Space-Chaosmos of Healing’을 10일부터 오는 9월9일까지 1~3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리일천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공간과 시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응축된 사진 작품들로 구성된다.

집과 길, 도시와 건축물 등 우리는 삶의 궤적마다 다양한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스쳐 지나가지만, 그 모든 공간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무심히 잊히고 사라지지만, 때로는 아무런 예고 없이 마주친 공간의 한 장면이 뚜렷한 인상으로 남아, 기억 속 깊은 어딘가에 오래도록 머문다. 리일천 작가는 바로 이러

한 ‘문득’의 순간에 주목한다.

그가 포착한 것은 공간 그 자체이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정서적 파동과 감각의 여운이 스며 있다. 인간이 부재한 공간의 문, 계단의 날카로운 단면, 벽과 바닥이 만나는 경계 등 건축적 요소들을 어떤 연출이나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 사진에 담는다.

리일천 작가의 작품 세계는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지각 현상학’을 통해 깊이 있게 읽힌다. 메를로-퐁티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로 느끼고 경험하며 세계와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봤다.

이처럼 ‘살아 있는 지각’의 순간을 담아낸 리일천의 작품 속 공간은 관람자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그 안으로 스며들고 관계를 맺게 하는 체험의 장(場)이 된다. 박찬 기자

이순신 장계문 진필 장소 ‘벽파진’ 주목

문화통plus 여름호 발간
운주사 비밀도 재조명

광주문화발전소가 발간하는 계간지 문화통plus가 여름호(통권 55호)를 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에디터레터 ‘알파람이 빛어낸 가짜천사’를 시작으로,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장계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가 진도 벽파진에서 작성됐다는 주장이 새롭게 조명됐다.

또한 운주사 집중탐구에서는 법화경 체험처로서의 운주사 성격과 천불천탑이 백련결사스님들의 작품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소개됐다. 특히 ‘와불이 일어서면 도읍이 된다’는 전설이 도읍 이전(遷都)이 아



닌 천도승천(遷都昇天)으로 잘못 해석돼 왔다는 박형상 변호사의 주장도 실려 있다.

특집 기사로는 광주·전남 문화답사의 매향인 광주민학회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전라도문화수수계회 ‘함평 모평마을에 충노비가 세워진 까닭’과 ‘동동구루무장수’ 김형창 명인의 삶도 담겼다.

이 외에도 △2000년을 진화해온 밥과 생선의 조화 원조 포스트푸드 ‘스시’의 모든 것 △넷플릭스 화제작 ‘폭삭 속았수다’ 다시보기 등 다양한 여름 특집 읽을거리가 실려 있다.

최동환 기자

경북 안동서 만나는 ACC의 영상 콘텐츠

ACC재단, ‘온라인극장’ 선배
9월까지 안동중앙아트시네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의 창작·제작 공연 영상과 필름을 유통하는 ‘ACC 온라인극장’을 오는 9월까지 경북 안동중앙아트시네마에서 선보인다.

10일 ACC재단에 따르면 이번 콘텐츠 유통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아시아 문화 콘텐츠 보급을 위한 ‘ACC 온라인극장’ 협력 유통기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됐다. 콘텐츠 유통 협력 기관으로 선정된 안동중앙아트시네마는 아시아 공연·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관객을 위한 무료 특별 상영회를 기획했다.

지난달부터 9월까지 매달 한 편씩, 총 다섯 편의 아시아 영화를 선보이는 ‘아시아 영화 특별전’을 통해 관객과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를 이어갈 방침이다.

상영작은 지난해 선보인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을 시작으로 △시대착오적 연대기: 아시아 안팎의 항해(6월) △찬란함의 무덤(7월) △선유후부가(8월) △스틸사이드(9월) 등이다.

6월 상영작인 ‘시대착오적 연대기: 아시아 안팎의 항해’는 동아시아 가족들이 직접 촬영한 홈비디오를 엮어 이주와 여행, 성장, 가족 관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네 개의 언어로 된 음성 해설과 문학적 해석, 움직이는 이미지가 어



사진은 이달 상영되는 ‘시대착오적 연대기: 아시아 안팎의 항해’의 한 장면. ACC재단 제공

우러진 독창적인 영상 작품이다.

필름 상영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또 다음달 4일에는 태극 감독 아 피차트 위라세타쿰의 작품 세계를 다루는 특별강연도 열린다.

작품은 사전 예매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안동중앙아트시네마 누리집(cafe.naver.com/joongangcinem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